



황희의 어릴 적 이름은 도야지, 고종의 어릴 적 이름은 개똥이

신현배 | 시인/역사 칼럼니스트 e-mail | 4201708@hanmail.net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13세에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 이 소식을 듣고 예종의 어머니인 윤대비가 기가 차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13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게 어디 사람이겠느냐? 똥이겠지.”

이리하여 갓 태어난 왕자의 어릴 적 이름은 ‘똥’이 되었다.

‘똥’자 붙은 사람의 이름은 또 있었다. 제26대 고종의 어릴 적 이름은 개똥이었다. 개똥은 ‘똥’자에다 ‘개’자까지 붙었으니 아주 천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천명위복(賤名爲福)’이라고 해서 천한 이름을 지어야 아이가 복을 받고 오래 산다고 생각했다. 천한 이름을 지어 불려야 귀신이 범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난 집안이나 자식이 귀한 집에서는 어릴 적 이름을 일부러 서당개, 검둥개, 개불이, 똥강생이로 하였다. 명재상인 황희의 어릴 적 이름은 도야지인데, 요즘도 장수 황씨 집성촌에서는 어릴 적 부르는 이름을 도야지로 짓는 집이 많이 있다고 한다.

어릴 적 이름은 장가들어 어른이 되면 사라지고 정식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런데 양반들은 정식 이름인 관명(冠名) 말고도 ‘자(字)’, ‘호(號)’ 등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다. ‘자’는 장가들어 얻는 이름이고, ‘호’는 자기가 짓거나 남이 지어 주어 늘상 부르는 이름이다. 그 밖에 또 갖게 되는 이름은 글 쓸 때 쓰는 필명,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내리는 시호, 집이 있는 곳이나 혼인에 의해 붙는 택호 등이 있다.

조선 시대에 양반들은 이처럼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지만, 여자들은 어릴 적 이름 말고는 따로 이름이 없었다. 어른이 되어 자기 이름을 갖는 여자는 여류 문인이나 기생 정도였다. 남존여비의 조선 사회에서는 여자는 족보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집가서는 그저 ‘제천 닻’, ‘김 서방 닻’, ‘개똥이 어머니’ 등으로 불릴 따름이었다.

한편, 이름에도 예절이 따라, 웃어른의 이름을 댈 때는 감히 직접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홍길동입니다.” 하지 않고 “‘길’자, ‘동’자입니다.” 하고 이름자를 낱낱이 풀어서 말했다. 또한 조상의 이름이 담긴 글자는 후손이 절대로 쓰지 못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뜻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돌려썼다.

철종 때 안동에서 올라온 젊은 선비는 과거에 장원 급제했는데도 그것을 물리친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이름이 원섭(元燮)인데, 장원(壯元)에 할아버지 이름자인 ‘원(元)’자가 들어 있다고 말이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웃어른의 이름을 얼마나 철저히 피했는지 알게 해 주는 이야기이다.

〈“조선 시대에는 천민에게도 이름이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 천민은 성이 따로 없는 대신 이름은 있었다. 대부분 태어난 장소나 태어난 해 혹은 날짜, 생김새·성격을 따서 짓거나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었다.

태어난 장소를 따서 지은 이름은 마당쇠, 부엌손, 사랑, 골목쇠, 서당개 등이고, 태어난 해나 날짜를 따서 지은 이름은 갑돌이, 병길이, 을순이, 보름이, 설아, 단오 등이다. 그리고 생김새를 따서 지은 이름은 육손이, 키다리, 장다리, 납작이, 점박이, 오목이, 성격을 따서 지은 이름은 억척이, 모질이, 어진이 등이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은 죽지만 말라고 죽지만, 딸을 그만 낳으라고 딸고만, 나중에는 아들이 나와 달라고 내중 등이 있다.

노비는 사람대접을 못 받아 짐승 이름이 많았다. 까마귀, 송사리, 강아지, 삽사리, 호랑이, 조음지(쥐) 등이 흔히 불리는 이름이었다.

대한기계학회 2019년도 주요일정

1월

- 11.(금), 회무 인수인계, 전임회장 간담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18.(금), 임원워크숍, 회장단-부문회장 회의, 제1차 이사회 / 장소 : 엘타워
- 18.(금), APCFS 2020 조직위원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615호

2월

- 15.(금), 회장단회의, 회장단-지회장 회의, 제2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2.(금),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정기총회 / 장소 : 웨라톤 서울 팰리스 강남호텔
- 26.(화)~28.(목), 신뢰성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라마다프라다 제주호텔

3월

- 15.(금), 회장단회의, 제3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7.(수)~29.(금), 동력(발전용) 보일러 교육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4월

- 10.(수)~12.(금),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서귀포KAL호텔
- 17.(수)~19.(금), 용접절차 및 용접사 인정에 관한 실무 교육 / 장소 : SETEC
- 18.(목)~20.(토), CAE 및 응용역학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휘닉스제주(섭지코지)
- 18.(목)~19.(금), 유체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세인트존스호텔(강릉)
- 19.(금), 회장단회의, 제4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4.(수)~26.(금), 바이오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한화리조트 해운대
- 24.(수)~27.(토), ICMDT 2019 / 장소 : 일본 시로야마 호텔
- 25.(목)~26.(금), IT융합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대전 라온호텔

5월

- 10.(금), 부산지회 춘계학술대회 / 장소 : 동아대
- 17.(금), 회장단회의, 제5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17.(금), 경남지회 춘계학술대회 / 장소 : 경남대
- 22.(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COEX
- 22.(수)~24.(금), 열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BEXCO
- 22.(수)~24.(금), 마이크로/나노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부산대 통합기계관

- 23.(목)~24.(금), 플랜트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BEXCO

- 24.(금), 대구·경북지회 춘계학술대회 /

장소 :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 24.(금), 울산지회 춘계학술대회 / 장소 : 울산대학교

- 29.(수)~31.(금), 압력기기 검사/평가/보수 / 장소 : SETEC

- 29.(수)~31.(금), 동역학 및 제어부문 춘계학술대회 및 KJ Symposium / 장소 : 임피리얼팰리스 서울호텔

- 30.(목)~31.(금), 동역학 및 제어부문 춘계학술대회 /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 31.(금), 충청지회 춘계학술대회 / 장소 : 한남대

6월

- 21.(금), 회장단회의, 제6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6.(수)~28.(금), 볼트 체결부 이론 및 설계 교육 / 장소 : SETEC

- 28.(금), 과총-학회 공동포럼(주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제조기술)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8월

- 16.(금), 회장단회의, 회장단-부문회장 회의, 제7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9월

- 20.(금), 회장단회의, 제8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5.(수)~27.(금),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 교육 / 장소 : SETEC

10월

- 18.(금), 회장단회의, 제9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4.(목)~25.(금), 볼트체결 조립에 관한 교육 / 장소 : SETEC

11월

- 13.(수)~16.(토), 2019년도 학술대회(본부) / 장소 : ICC제주

- 13.(수), 평의원회 / 장소 : ICC제주 내

- 14.(목), 정기총회 / 장소 : ICC제주

- 15.(금), 제10차 이사회(조찬), 부문회장-지회장 회의 / 장소 : ICC제주

- 27.(수)~29.(금), ICMR2019 / 장소 : 메종글래드제주호텔

12월

- 20.(금), 제11차 이사회 / 장소 : 학회 회의실

- 20.(금), 송년회 / 장소 : 미정